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유가 금리 환율 등 경제 여건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IT부문에서는 그동안 탄탄히 닦아 놓은 성장 기반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내실을 다져 나가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이 개최한 '정보사회정상회의(WSSIS)'에서 발표된 '디지털 기회지수(DOI) 세계 1위'가 말해주듯,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은 명실 공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T가 앞장서서 국가 사회 전 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IT와 우리 정통부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며, 국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큼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저는 금년에 다음 정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화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u-KOREA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u-City, u-Defence, u-Security 등을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광대역통합망(BcN)과 RFID/USN 인프라 고도화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IPv6 전면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융합 및 무선 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보안위협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등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기는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력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IT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신산업 활성화와 신규 고용의 창출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IT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윤리규범을 확립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 유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국가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국가정보화 확산 및 활용, 효율적인 정보화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CITO로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IT산업 분야입니다. 주요 서비스 도입이 일단락되고 기술개발 성과가 나타나는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IT839 전략'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 품목 재조정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100만원대 국민로봇 출시, 공공분야 RFID 선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WiBro 등 그동안의 핵심기술 개발 성과가 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방 등 타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생태환경 건전화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강화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분위기 정착과 실질적인 IT SMERP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SW부문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작년 12월 'SW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마련된 정책방향에 따라, IT서비스 기업의 전문화 적극 유도, 패키지 SW육성을 위한 생태계 재조성, SW인재육성 시스템 마련과 전략SW 육성 등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꿈 스퀘어', 송도 u-IT클러스터 등 유비쿼터스 IT허브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IT발전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세계최초로 WiBro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고,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하여 광대역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통신규제제도를 시장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원활한 법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 진보 등 환경변화에 맞는 이동전화 보안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전자 방송분야에서는 지상파 DTV와 DMB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전파관리 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발굴·공급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출력기용 주파수 공급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통신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파수할당 및 회수·재배치 제도를 개선하고, 무선국 허가방식 및 절차를 보완하며, 불법무선국의 단속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2005년 수도권·광역시에 이어 올해에는 17개 시·군 지역에서 DTV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디지털TV 방송의 전국 확대를 완결하고,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허가료 지상파

DMB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DMB의 혜택을 누리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협력 분야입니다. 작년 11월 부산 APEC 정상 회의를 통해 입증된 'IT 강국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해외 R&D센터의 지속 유치 및 우리 IT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TT839 전략의 성과로 DMB, WiBro 등의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이 경쟁국보다 조기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선점의 최적기로 판단되므로 TT839 전략의 성과의 수출상품화 촉진과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R&D센터의 유치 확대로 국내 IT산업의 전면적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독일월드컵, 카타르 아시안게임 등을 활용해 '보고 느끼는' DMB와 WiBro 로드쇼를 개최하여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시장 선점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사업 본격화 등 남북경협 확대 추세에 부응해 남북 당국간 IT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북한 IT인력 양성과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로 통일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과업에도 우리 정통부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인터넷 실명제'나 IP-TV 문제,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 제도 등 중요한 현안 과제들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 지워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올해도 우리 앞에는 도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가 일궈낸 성과를 보건데 그 열정과 노력이라면 올해도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도 IT가 어려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정보통신 역사에 기억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

## 첨단 IT 기술의 내실있는 성장에 주력할 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이기태

다사다난했던 을유년(乙酉年)이 가고 새로운 병술년(丙戌年)이 밝았습니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회원사 및 업계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큰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 경기 침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의 급성장과 일본의 추격 등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더불어 와이브로(Wibro), DMB 등 첨단 IT 기술의 성공적인 시연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IT 수출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 연속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IT산업의 역량을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국내 경제와 세계 IT시장의 완만한 성장세가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 즉 기존 시장과 더불어 EU 및 신흥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 일류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와이브로, DMB, 디지털 TV 등 첨단 IT 기술의 내실있는 성장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도 IT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IT 산업의 Global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하고 실속있게 지원하는 한편 동유럽, 중국 등 MOU를 체결한 국가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차세대 IT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차세대를 준비하는 LBS산업과 E-Biz 산업, 언어-음성정보 산업 등에 대한 기술 표준과 시장 확대를 위하여 협의회와 포럼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아이디어로 미래 IT 산업을 이끌 벤처산업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정보를 선별, 제공하여 무한 경쟁 시대를 앞서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실있고 정확한 산업 통계자료 및 부문 비교 통계, BSI 지수 통계 등을 국내 각급 기관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한 발 앞선 기업이 되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뛰어난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지식 경제시대의 치열한 경쟁은 기업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적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의 확보 및 효과적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인터넷 정보검색사, 리눅스 마스터, 무선 인터넷 관리자 시험을 비롯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 정보통신 인력 양성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숙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업계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건전한 정보통신의 이용 문화정착을 위하여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인증제도와 개인 정보보호마크 제도를 꾸준히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한해에도 협회 사업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소망 성취는 물론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